달라이라마, "환경, 인류전체 문제"

'지구의날' 50주년 맞아 기념메시지 발표

김민재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4월 22일 세계 수자원 문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인류라는 가족"임을 강조했다. 때문에 지구에 대한 보편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노력해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지구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크게 위협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비심과 상호 의존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인종, 문화 또는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져주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달라이라마는 "현재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인종, 문화 또는 성별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기에,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운

코로나19 관련 연대 · 협력 강조

"깨끗한 물과 위생 절실한 때"

의료진 · 위생기기 중요성 강조해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이며 보편적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솔한 입장을 드러냈다.

달라이라마에 따르면 그는 1959년 티베트에서 망명한 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티베트에선 계곡물을 마시면서 물이 안전한 지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오늘날 깨끗한 식수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는 점에서다.


성도성지 부다가야에서 기도를 올리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는 우리에게 보편적 책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지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고 지구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라며 "세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겪게 되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제되지 않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환자들과 의료관계자들에게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며 "위생은 효과적인 건강관리의 기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관련, 의료진의 역할과 위생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의료진과 기기들이 제대로 갖춰진 위생 시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재 우리의 지구를 유린하는 전염병에 맞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향후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 중 하나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세계 보건에 대해 유엔이 제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日, 종교 · 종파 초월한 '코로나19 극복 기도회'

토다이지와 고야산이 주축

정오를 기해 각지에서 봉행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종교와 종파를 초월해,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뜻 깊은 기도회가 봉행됐다. 4월 2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 '아사히 신문' 'NHK 방송' 등 주요 언론들은 나라의 토다이지(東大寺)에서 봉행된 기도회를 특별 보도했다.


토다이 대불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2m씩 떨어졌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세계문화유산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일본 토다이지(東大寺, 동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를 봉행해 왔다. 매일 정오 대불전에서 열리는 이 '정오의 기도회'는 코로나 19의 조기종식과 확진자들의 쾌유, 사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토다이지 주지 사가와 후몬 스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시간(정오) 만큼은 그 누구라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란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의 신사와 교회 등 모든 종교인 분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각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후몬 스님의 간곡한 부탁에 일본 각 종단의 대표자들과 종교인들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합동기도회가 결성됐다.

합동기도회가 봉행된 4월 24일 오후, 토다이지 대불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각 교단 대표자 7인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2m 가량 서로 떨어진 채로 취재진을 맞이했다. 이날 불교에서 5인, 신도(神道)에서 1인, 가톨릭에서 1인의 대표자들이 기도회 취지를 전했다.

사회를 맡은 토다이지 집사 모리모토 코죠 스님은 "합동기도회라고 하면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 모두 모여 봉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은 밀폐된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것이기에 자제하기로 했다"며 "대신 정오에 맞춰 각 종교시설에서 봉행되는 기도회를 인터넷 라이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를 대표해 나온 카와무라 히로아키 신부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점이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라며 "기도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연을 잇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종교와 종파를 넘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은 곧바로 화제가 됐다. 기자회견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9만회 이상의 리트윗, 25만회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 일반 시민들 역시 "종교를 넘어 대불전 앞에서 나란히 선 종교인들의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서는 전사와 같이 보인다"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모습에 감동했다"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한편 토다이지 측은 이날 "기도회 동참을 목적으로 사찰을 찾아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불전을 5월 31일까지 폐쇄한다. 대불참배는 참배로에서 요배(遙拜)하는 것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사찰들, 코로나 사태에 운영난

국가적 경기침체 심각 우려

대표적 사찰도 보시 등 급감


태국 파툼 타니의 탈라트 타이 도매시장을 지나는 스님들. 사진출처=불름버그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표적인 불교국가 태국의 사찰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말레이시아 금융 일간지 '디 엣지'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태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으로 태국의 승단은 탁발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 불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 매일 아침 재가자를 상징하는 흰 옷에 불교도를 상징하는 주황색 장식을 달고,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을 보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태국 정부가 봉쇄령을 내린 이후 스님들의 생계에 지장이 생기면서 대표적인 희생자로 지목되고 있다.

태국 국립 불교 사무소 시보완 캐응엔 조사관은 "코로나 사태 이전엔 탁발을 가면 10채의 집 모두에서 음식 공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채 중 3채로 줄어들었다. 특히 태국의 사찰 중 약 5분의 1은 농촌지역에 기반하기에 어려움이 더 크다"고 전했다. 현재 국립 불교 사무소는 생필품과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스님들을 돕기 위한 민간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다. 관광지로 유명한 치앙마이에서 유명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홈통팁 차판자켓응암 대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자 무기한 휴업을 선언하고, 가게에 있던 식자재를 요리해 탁발에 나서지 못하는 스님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홈통팁 대표는 "스님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매일 영양이 필요한 분들이다. 쌀, 통조림, 야채 등 스님들을 위한 식품들을 최대한 모아서 전달하고 있다. 최근 방문한 사찰의 한 스님은 오래간만에 재대로 된 공양을 받았다며 매우 행복해 하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태국은 국민의 90%이상이 불자인 국가로, 현재 코로나 19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해 4월까지 모든 종교의례를 취소한 상황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코로나블루 떨치는 불교의례 연주

에이신 스님의 희망 메시지

밥말리 노래 등 佛具로 연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대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코로나 블루(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스님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4월 25일 일본의 '아키타 게이자이 신문'은 불구로 팝송을 연주하는 스님의 영상을 특별 보도했다.

아키타(秋田県)현에 소재한 소안지(松庵寺)의 부주지 와타나베 에이신(渡邊英心) 스님은 4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자메이카의 싱어송라이터 밥 말리의 노래 '트리 리틀 버즈(three little birds)'를 노래하는 영상을 업로드 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노래에서 사용되는 악기가 모두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불구라는 점이다. 주요 음률을 위한 기타를 제외하고 사용되는 악기들은 목탁, 법고, 염주 등으로, 스님은 각각의 악기로 연주하는 영상들을 하나로 모아서 1분 가량의 영상으로 만들어냈다.

에이신 스님은 "학인시절 남미의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음악을 접했다. 일본에 돌아와서도 레게 밴드를 표방한 밴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예전부터 밥 말리의 노래를 좋아했다"며 음악적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법회나 제사 등이 취소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다. 덕분에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었다"고 웃어보였다.

스님은 "노래가사가 선(禪)의 가르침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이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통해 콜로나로 어두워진 마음에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님의 영상은 현재 2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넘기며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마음이 편안해 지는 영상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기타마저 불구로 대체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